

소의 식이성 장독혈증

(Alimentary Enterotoxemia in Cattle)

곽 규 용

충남가축병원



서론

식이성 장독혈증이란 사료 중독으로 임상적으로 외관상 독혈증형급성소화불량증³⁾이나 급성 제1위식체⁵⁾와 비슷하고, 변의 상태는 크루프성장염²⁾이나 살모넬라증⁶⁾과 같은 질환을 저자가 명명한 것으로 한우에서 장기보관(약 10개월)된 배합사료에 의하여 발생된 예를 임상적으로 소개한다.

증상

한우, ♀, 16개월령, 1979년 9월 28일 초진. 종부시키지 10일 되었으며 아침에는 조금 먹고 점심은 안먹고 누워서 일어지지 않으며 물변을 누웠는데 회충인지 촌충인지 희고 긴것이 나왔다며 왕진요청

환측은 외관상 전형적인 유열의 자세로서 좌측으로 횡와하여 머리를 좌측으로 구부리고 항문활약근이 이완되어 벌어져 있으며 약취가 나며 붉은 빛이 조금도는 물같은 액변에 흰색의 점액(2cm × 10~20cm)이 섞여나와 있으며 신음소리도 없이 조용히 누워있었다.

영양상태는 중정도며 호흡은 약하고 느리며 머리를 앞으로 똑바로 해주면 바닥에 대고 있다가 천천히 좌측으로 돌린다. 피부에 탄력이 없으며 제1위 운동이 없고 사지와 머리는 냉감이 있고 동공반사와 꼬리의 저항도 없었다. 체온은 38°C, 심박동은 청취안되며, 직장검사서 숙변은 없고 약취나는 물같은 액변에 점액이 섞여나왔다.

암소 입식자극에 의하여 봄에 구입하여 그동안 잘자랐으며 여름에는 생식시켰고 종부시킨 다음부터 화식에 사료를 조금씩 섞어서 주었으며 초진전날 저녁에도 먹었고 아침에는 조금 먹었으며, 변도 아침까지 정상이었으며 아침에 마당으로 내뺄때도 잘 걸었고 어떠한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배합사료는 B사료로 봄에 소 입식과 함께 조합에서 배달해준 4로중 마지막 포로 외관상 냄새도

없고 정상이었다. 배합사료 성분보증표가 있어서 보니 고깃소 후기용이고 재조일자가 78년 12월 6일이었다. 배합사료 성분보증표의 주의사항(제조일로부터부터 가급적 15일 이내에 사용)을 읽어보았으나 고 물은즉 조합에서 준것이며 빨리 먹이라는 말도 없어서 묵은 사료를 배정받았는 지도 몰랐으며 오래두어도 무관한 줄 알고 아끼느라고 두었다가 증부시킨 다음부터 조금씩 섞어주었으며 증부시킨 후부터 식욕이 조금 떨어져 중모우가 너무 크고 암소는 작아서 힘들어서 그런줄 알았고 배합사료 성분보증표는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치료

5% 포도당액 1,000ml에 치오황산나트륨제제(시판용) 50ml를 섞어서 서서히 정맥주사, 안아가 10ml와 비타민 B복합제 50ml를 각각 피하주사, 페니시린 400만 단위 근육주사하고 절식 시키게 하였으며 배합사료는 버리게 하였다. 익일 효모, 제1위운동 촉진제, 지사제, 항생제(C.M.)을 조제하여 3회 복용시켰다.

경과

정맥주사시에는 경정맥이 노장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주사후에 심박동이 약하고 빠르게 청취되었고, 치료한 다음 2시간후에 일어섰으며, 익일부터는 물같은 점액변이 소실되었다. 익일 아침까지 절식 시켰고, 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1일분의 조제약을 경구투여중 점심부터 조금씩 쇠죽을 먹기 시작하였고 차차 식욕이 증진되었다.

고찰

본질환은 실험실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사양관리와 임상적인 증세로 볼때 장기보존(약 10개월)에 의하여 변태된(육안적으로는 정상이지만) 배합사료에 의한 사료중독으로 임상적인 증세로 보아서 식이성 장독혈증으로 사료된다.

본병과 유사증상으로 감별을 요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 농후사료의 장기간 과다급여나 과식에 의한 산성증은 웅크리고 누워 머리를 열가슴에 붙이거나 목을 앞으로 뻗어 땅에 대고 있으며 감각이 마비되고 동공반사가 둔화되며 혼수가 오므로 본병과 증상이 유사하지만 기왕력과 변에서 강한 신념새¹⁾가 나므로 본병의 악취나는 점액섞인 액상변과 구별된다. ② 독혈증형급성소화불량증²⁾도 유열에서의 자세와 같아서 본병과 아주 유사하지만 점액이 섞인 액상의 변으로 구별된다. ③ 유열은 분

만과 관계가 있으며 변이 굳어⁵⁾ 본병과 변으로 구별된다. ④ 케톤증은 아세톤취가 나며 점액이 섞인 악취나는 액변이 아니므로 변으로 구별된다. ⑤ 임신독혈증은 임신말기에 발생³⁾되며, ⑥ 유마중독은 유마의 섭취가 선행되며³⁾, ⑦ 크루프성 장염에서는 점액이 섞이고 악취있는 하리가 있으나 선통증상과 이급후증²⁾이 있으나 처음부터 액상변이 아니므로 본병과 구별된다. ⑧ 심한 살모넬라증에서는 초자양 점액의 액상변이 나와⁴⁾ 본병의 변과 유사하지만 증세가 다르고 또한 살모넬라증에서는 열이 있어⁴⁾ 본병과 구별된다. ⑨ 장독혈증(*Clostridium perfringens*)은 신경증상이 있고 갈색하리이므로 구별된다. ⑩ 장폐쇄후기에는 직장에 숙분이 없어 혼동될수 있으나 초기증세로 본병과 구별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질병과 임상적으로 다르므로 식이성 장독혈증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된다.

결과

한우에서 약 10개월간 보관된 배합사료에 의하여 외관상 전형적인 유열에 의한 자세와 같은 횡와하여 목을 옆으로 돌리고 항문환약군이 이완되고, 심한 살모넬라증과 같은 장염에서 보이는 점액이 섞인 악취나는 액변이 있고, 동공반사와 꼬리저항이 없으며, 피부의 냉감, 약하고 느린호흡, 체온은 38℃이나 청진에 의하여 심박동이 청취되지 않는 식이성 장독혈증이 발생되었으며, 5% 포도당액 1,000ml에 치오황산나트륨 제제 50ml를 혼합하여 정맥주사후 청진에 의하여 심박동이 약하고 빠르게 확인되고, 강심제, 비타민 B그룹과 페니시린의 주사후 2시간 있다가 기립하고 외부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절식 시킨후 익일 효모, 제1위운동촉진제, 지사제, 항생제를 3회 경구투여하고 회복되었다.

참고문헌

1. Stöber M. and Serrano H, S : Gross Findings in Bovine Faeces, Vet. Med. Rev. (1974) p361-378.
2. 金善煥譯(Udall D, H. 著) : 獸醫內科學, 大韓獸醫師會, (1962) p118.
3. 李芳煥 : 最新家畜臨床診療學(牛篇), 林出版社, (1976)
4. 李且秀와 草鍊斌 : 肥肉用 홀스타인종 송아지에 發生한 *Salmonella* 感染症, 大韓獸醫師會誌, (1979) V15, p505
5. 李鉉凡 : 소의 第1胃疾病, 大韓獸醫師會誌, (1979) V15, p67
6. 鄭雲翼 : 牛糞의 病理所見과 診斷的價値, 大韓獸醫師會誌, (1977) V13, p245